

老洲 吳熙常의 講學 활동과 독서론*

신 영 주**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II. 노주의 독서론과 讀書四法 |
| II. 노주의 일생과 강학 활동에
관하여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18세기 말에 성장하고 19세기 전반에 장년기를 보내면서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불안한 정세를 민감하게 느꼈던 노주의 강학 활동과 독서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노주는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는 관료가 되기보다 儒賢으로 남아 학문 강학의 길에서 역할을 다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당시는 국외에서 밀려오는 이국 문물과 가치가 내부 질서와 충돌하여 조선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 내부에서 지켜오던 학문의 전통과 권위가 흔들리고 儒道가 약해지고 있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노주는 유도를 회복하기 위해 평생 고심하였다. 국왕에게 돈독한 지우를 입었고 끊임없이 召命도 내려왔으나 번번이 마다하고 학문 강학에 집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주는 사회를 변화시킬 지역 거점으로 서원 공간을 주목하였다. 석실서원과 덕봉서원 등에서 강학을 주관하여 지역 사회가 변화하고 이어서 온 나라가 변화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 당대의 왜곡된 가치 질서를 바로 세워

* 이 논문은 201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syj@sungshin.ac.kr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크게 의의를 부여할 만하다.

노주는 강학을 진행하는 사이에 선현이 제시한 독서 방법 중에서 당시의 강학 현실에 맞추어 변용할 만한 몇 가지 독서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先經後史의 방법으로 경서를 우선하여 읽고 역사서로 보충하여 읽기, 역량에 따라서 課程을 세워 읽기, 字句를 사색하고 疑難을 찾아내어 묻고 분석하여 읽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독서의 네 단계로서 四法을 제시하여 단계에 따라 심화하여 차근차근 책을 읽을 것을 권하였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노주의 강학 활동에서 더 주목할 것으로 세자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점과 관북 지역 출신 유생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점을 꼽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추가 연구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노주 오희상, 강학, 독서, 선경후사(先經後史), 독서사법(讀書四法)

I. 머리말

老洲 吳熙常은 계미년(1763) 5월 10일 유시에 서울 慶幸坊¹⁾ 사저에서 태어나, 계사년(1833) 10월 7일 유시에 향년 71세로 별세하였다. 경행방 사저는 현종 사위가 된 증조부 吳泰周(1668~1716)가 하사받아 소유하던 집이다. 오테주는 1679년에 12세 나이로 明安公主에게 장가들어 海昌尉에 봉해진 인물이다.

노주는 왕의 인척이면서 재상, 문형 등을 배출한 명문가 자제로서 평생 끊임없이 벼슬에 제수하는 召命을 받았으나, 번번이 응하지 않고 사직을 청하였다. 출사하여 현실 정치에 이바지하기보다 학문 강학에 집중하여 유도를 계승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 경행방(慶幸坊)은 조선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중부 8방 중의 하나이다. 현재 종로 23가, 낙원동, 돈의동, 경운동, 와룡동 각 일부에 해당한다.

순조 33년(1833) 10월 8일 『실록』 기사에는 세상을 떠난 오희상을 위해 작성한 졸기가 기록되어 있다.²⁾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찬선 오희상이 졸하였다. 하교하시기를, “이 儒賢은 한 번도 조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조정에서 평소에 얼마나 예우하였던가. 지금 서거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매우 놀랍고 슬픈 마음이 든다. 고 찬선 오희상 집에 상례 용품을 전례대로 넉넉하게 보낼 것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오희상은 海州 사람으로 판서 吳載紹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재상 아들로써 행실을 깨끗이 닦고 학문을 좋아하였고 독실하게 뜻을 세우고 힘껏 실행하였다. 음관에 제수해도 나오지 않았으나 명성과 덕망은 성대해졌다. 遺逸로 선발된 뒤로는 마침내 물러나 鷺湖 강가에서 거하였고 많은 사방 선비에게 공경을 받고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儒家 法門에 있는 자들이 모두 나오지 않고 은둔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義諦로 삼아서 평소에 쌓은 致君澤民의 방법을 토론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儒賢으로 남아 학문 강학의 길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18세기 말에 성장하고 19세기 전반에 장년기를 보내면서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한 불안한 정세를 민감하게 느끼던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위 졸기는 벼슬하는 관료로서가 아니라 학술 강학에 힘을 쏟은 儒賢으로서 그가 국왕에게 돈독한 지우를 입었음을 보여준다. 끊임없는 召命을 모두 마다하고서 언제나 학문 강학에 집중한 것에서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는 국외에서 밀려오는 이국 문물이 내부 질서와 충돌하여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다. 아울러 조선 내부에서 전해오던 학문의 전통과 권위가 흔들린 까닭에 점차 儒道가 약해지고 사회 기강도 덩달아 어수선해지고 있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노주가 선택한 것은 유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는 19세기 초반의 변혁기에 대응하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나타나던 모습이다. 예컨대 같은 학맥으로 친분이 깊은 매산 홍직필(1776~1852) 역시 유도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³⁾

2) 『純祖實錄』 33년(1833) 10월 8일 기사.

노주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최근에 김병목(2014)과 신상후(2018)가 노주의 性理說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고하였고, 정길연(2018)이 禮說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고하였다. 또 노대환(2008)은 세도 정치기 산림 처사로서의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고하였다. 이 몇 편의 연구가 보고되어 노주의 학술 업적이 드러날 수 있었으나, 아직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노주의 지위와 비중에 걸맞은 다양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는 노주가 학자 교육자로서 가문과 지역 사회 공동체 내에서 질서와 기강을 세우고 쇠퇴한 풍속을 바로 잡기 위해 시도한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로써 19세기 조선에서 이루어진 학문 강화 활동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그가 제시한 독서 방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주의 일생과 강학 활동에 관하여

노주 집안은 고조 吳斗寅이 영의정을 지내어 가문이 일어나고 증조 吳泰周가 현종 사위가 되어 명실상부한 명문가로 성장하였다. 그 뒤에 조부 吳瑗이 대제학에 올랐으며, 친부 吳載純이 판중추부사에 오르고 양부 吳載紹가 판서에 올라 가문의 명성이 온전하게 이어졌다. 노주의 직계 가족을 소개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관계		생물년	자	호	관직	시호
고조	吳斗寅	1624~1689	元徵	陽谷	영의정	忠貞
증조부	吳泰周	1668~1716	道長	醉夢軒	海昌尉	文孝
조부	吳瑗	1700~1740	伯玉	月谷	대제학	文穆
친부(첫째)	吳載純	1727~1792	文卿	醇庵	判中樞府事	文靖

3) 신영주, 「梅山 洪直弼의 儒道존숭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관계		생몰년	자	호	관직	시호
숙부(둘째)	吳載維	1729~1764	持卿	雲樵		
양부(셋째)	吳載紹	1739~1811	克卿	石泉	判書	定獻
친형	吳允常	1746~1783	士執	寧齋		
	吳熙常	1763~1833	士敬	老洲		文元
친제	吳淵常	1765~1821	士默	約庵	參判	
친자	吳致成	1785~1844	瑞五		牧使	
친자	吳致翼				郡守	
친녀	閔致祿				驪城府院君	
친녀	金輔根				判書	

노주는 명문가에서 성장하면서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전통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형 寧齋 吳允常(1746~1783)에게 학문을 배웠다. 영재는 노주보다 17세 연상으로 溪湖 金元行에게 수학하여 농암 가문의 학문을 공부한 인물이었다. 노주는 자연스럽게 영재를 통해 농암에서 미호로 이어지는 노론 학맥의 전통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노주는 산림 학자이자 교육자로 성장하여 성취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출사할 뜻까지 품지는 않았다. 오히려 출사하지 않을 뜻이 굳건함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일찍이 李正觀(1792~1854)이 석실서원에서 이루어진 講席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쁜 마음을 표하면서 언급한 다음의 발언에서도 그의 이런 뜻이 확인된다.

현재 명성과 이익을 좇는 물결이 하늘까지 차올라서 나뭇배 한 척만으로는 헤쳐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오. 진실로 區區하게 강학하는 것이 겨우 流俗의 비웃음을 살 뿐임은 알겠으나, 이런 고충이 있는 것이라오. 가만히 생각건대, 이 서원은 농암 선생부터 3대에 걸쳐 도를 강론하던 장소여서, 그 遺韻과 餘響이 거의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 있소. 다만 이를 고취하고 창도할 자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소멸하기에 이르렀소. 이에 함부로 주제도 모른 채 옛 규범을 정돈하고 갖추어 諸生을 위해 앞장서 이끌려 하는 것이오. 부디 이로써 훌륭한 선비 한둘을 부축해 세워 차차 오랫동안 연마시켜서, 혹 떨어져 일어나 밧고 따를 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오.⁴⁾

노주는 당시 시대 모습을 '명성과 이익을 좇는 물결이 하늘까지 차올라서 나룻배 한 척만으로는 헤쳐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보았다. 세상에 넘쳐나는 그릇된 세태를 홀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까닭에 流俗의 비웃음을 무릅쓰고서 區區하나마 강학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농암 선생이 강학하던 유서 깊은 이 석실서원에서 그 遺韻과 餘響을 다시 고취하고 훌륭한 선비를 떨쳐 일어나게 만들어 세상을 치유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런 소명의식이 굳건하였기에 벼슬을 멀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1783년에 21세 나이로 감시 초시에 응시한 바 있으나, 스스로 進取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친부의 명에 따라 부득이 監試 初試에 응시하기는 하였으나 三經義를 지어 終場에 들어갔을 뿐 더 응시하지 않았다. 이후 7년이 지난 1790년 경술년에는 세자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관학 유생들에게 음식을 하사하고 특별시를 치러 어쩔 수 없이 한 차례 더 응시하게 되었으나, 아예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물러났다고 한다. 애초에 과거에 응시할 뜻이 없었고 이를 굽히지 않으려 일부러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로 벼슬에 제수하는 국왕의 소명이 수시로 긴박하게 내려왔으나, 번번이 모두 사양하였다. 그 사이 노주에게 제수한 벼슬을 정리하면 대략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노주의 관력

연도(나이)	월	관력
1783(21세)	가을	監試 初試에 응시
1790(28세)		세자 탄신 기념 특별시 응시
1799(37세)	11월	經傳朱書 전공자로 천거
1800(38세)	1월	익위사 洗馬
	1월	익위사 侍直

4) 吳熙常, 『老洲集』 卷13, 「答李正觀」.

연도(나이)	월	관력
	1월	장릉 참봉
	1월	돈녕부 참봉
	1월	褥席執事
	4월	익위사 부술 (출사)
	9월	五衛 司果
	10월	장악원 주부 (출사)
	11월	한성부 주부
1811(49세)	8월	돈녕부 주부 (출사)
1814(52세)	6월	황해도 도사
1815(53세)	3월	익위사 사어 (출사)
1818(56세)	10월	경연관
	10월	서연관
	10월	사헌부 지평
1819(57세)	2월	사헌부 장령
	2월	겸시강원 진선
	윤4월	사헌부 집의
	5월	사헌부 장령
1820(58세)	1월	사헌부 집의
	11월	장악원 정
	12월	사헌부 집의
1821(59세)	4월	대행왕대비만장제술관
	6월	건릉천릉만장제술관
	12월	사헌부 집의
1822(60세)	7월	司諫院 司諫
1823(61세)	1월	顯穆綏嬪葬禮時輓章製述官
	6월	사헌부 집의
	8월	승정원 동부승지
	8월	돈녕부 도정
	9월	형조 참의
1826(64세)	1월	동부승지
	2월	시강원 찬선

연도(나이)	월	관력
1827(65세)	3월	이조 참의
	윤5월	형조 참의
1829(67세)	11월	世孫傳
1830(68세)	윤4월	이조 참의
	6월	만장제술관
	8월	공조 참의
1832(70세)	9월	세손시강원 찬선

노주 자신은 출사하지 않을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자 했으나, 사람들은 왕가의 외척이자 명문가 자제로서 학문적 성취가 뛰어난 젊은 인재가 산림에 묻혀 처사로 지내도록 놓아두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노주는 대부분 응하지 않다가 1800년 4월에 翊衛司 副率에 제수되었을 때는 왕명을 끝까지 어길 수 없어 출사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장악원 주부에 나아갔다가 곧바로 사직하였다. 이후 10년이 지난 1811년 8월에도 돈녕부 주부에 한 차례 나가고, 다시 4년이 지난 1815년에 익위사 사어에 잠시 나아간 것이 그가 출사한 전부이다.

이처럼 벼슬을 멀리한 대신 시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학문 강학에 주목하였고, 가는 곳마다 예외 없이 강학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서원 공간에서 강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일이 눈에 띈다.

아, 근래에 士林이 쇠하고 儒風이 침체하였는데 우리 지역이 더욱 심하기에 평소 한탄하면서 하루도 걱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서원 유생들이 외람하게 講事를 부탁했는데, 혼자 생각에 재주가 볼품없을 뿐 아니라, 남에게 끼칠 만한 어실이 어디에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다만 이를 우리 지역을 한번 크게 변화시킬 기회로 삼아, 형편대로 잘 이끈다면 그래도 도모할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자기 꼴도 모른 채 대번에 일을 맡았습니다.⁵⁾

5) 상계서, 권8, 「與尹命汝永厚」.

이는 德峯書院에서 강학을 맡았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56세가 되던 1818년에 처음으로 덕봉서원에서 講會를 주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⁶⁾ 노주는 이 일을 맡아서 이 지역을 한번 크게 변화시킬 기회로 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로부터 형편에 맞게 강학을 이끌어간다면 지역 사회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쇠퇴하는 사림의 기세를 부추하고 침체하는 유풍을 진작시킬 일이 절실한 시기에, 마침 서원 유생들이 강경하는 일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서야 풍속을 일변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주를 무릅쓰고 엄두를 내고자 한다는 고백에서 절박한 심경을 엿볼 수 있다.

이후로 강회를 꾸준히 이어갔고 적지 않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실제로 덕봉서원 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제 稟目과 講義問目을 받고서 그간 강회를 열어 백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위의를 갖추어서 경문의 뜻을 강론한 것이 사람의 생각을 일깨우는 점이 매우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펼쳐본 뒤에 마음과 눈이 번쩍 뜨여 저도 모르게 펼쳐 뛰어 일어났습니다.”⁷⁾라고 하였다. 또 1823년 5월에는 城主 朴肯源이 참석한 자리에서 講生 50여 명이 모여 이른 『대학』을 강하고 어린아이는 『소학』을 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⁸⁾

노주는 강학을 통해 한 고을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방의 뜻있는 선비를 흥기하여 세상을 바로잡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⁹⁾ 강학을 지속하여 독서 종자를 기르고 풍속을 변화시킴으로써 儒道를 회복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6) 상계서, 권15, 「癸未記行」, “丙子, 設講會于德院. 余自戊寅, 始管院事.”

7) 상계서, 권13, 「答德峰儒生」.

8) 상계서, 권15, 「癸未記行」, “今行諸生設講而請, 余遂赴之. 直月尹永厚命汝, 朴宗圭汝玄俱來, 城主【朴公肯源】亦來臨聽講. 講生凡五十餘人, 序齒行禮訖, 長者大學, 童子小學, 各以文義互相質問, 甚爛漫.”

9) 상계서, 권13, 「答德峰儒生」, “每念近日常學之墜, 私自永歎, 乃今始知非無士也, 殆無人倡之耳. 一此不懈, 佇見觀感興作之效. 然則是舉也, 庶可爲四方志士之倡, 豈徒爲吾鄉之幸也.”

아, 선현의 유택이 이미 멀어지고 師友의 道가 쇠해서 세상에 讀書種子가 드물고 선비의 도가 날로 쇠합니다. 극렬하고 급급하게 모두 利慾科臼에 빠져들어 어 더는 民彝物則이 무엇인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道로 현재의 풍속을 바꾸지 못하면 어찌 伊川이 머리를 풀고서 탄식한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을은 모든 사람이 이를 개탄하여 講學하여 창도할 생각을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하여 남들을 끝없이 감격하게 만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일 이로부터 넓혀나간다면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풍속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못해도 자신을 닦아 한 고을의 모범을 보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¹⁰⁾

선현이 전한 유택이 멀어지고 師友의 도가 쇠하더니 마침내 독서 종자가 사라져 民彝物則을 모른 채 너나없이 利慾의 科臼에 빠져들고 있을 뿐이라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고을 사람들과 뜻을 모아 강학을 통해 독서 종자를 길러내고자 하였다. 斯學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선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창도하여 일으킬 사람이 없어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창도하는 일을 자임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주는 덕봉서원에서 강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講規를 작성하였다. 율곡의 「학고모범」을 본떠서 작성한 講規를 유생들에게 전달하고,¹¹⁾ 이에 따라 이후로 매달 한 차례씩 講會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 강학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듯하다. 강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이를 없애자는 의견이 분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주는 형식을 남겨두어 후세에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월에 한 번씩이라도 강회를 열자고 주장하였다.

10) 상계서, 권13, 「與德峰儒生」.

11) 상계서, 권15, 「癸未記行」, “丙子, 設講會于德院. 余自戊寅, 始管院事, 畧倣栗谷學校模範, 爲講規授諸生, 俾月一會講.”

격월로 강회를 여는 문제를 거듭 말씀드렸는데, 쇠퇴한 서원에서 선비를 기르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만두고 봄가을 두 차례만 강회를 열자고 합니다. 구구한 저는 이에 속으로 안타까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무릇 일은 大體를 보아야 하고 枝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講員이 저마다 양식을 싸 오는 것이 구차하기는 하지만, 구차하다고 폐지하기보다 변통해서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陶翁도 道基書院에서 선비들에게 양식을 싸 오게 하셨으니, 선배들도 勸學을 급선무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비들이 誠心으로 이 일을 대한다면 또한 어찌 이를 구차하게 여기겠습니까?¹²⁾

쇠퇴한 서원에서 선비를 기르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봄가을로 두 차례만 강회를 열자는 덕봉서원 유생 측의 의견에 대해, 적어도 격월로는 강회를 열어야 마땅하다고 설득한 내용이다. 운영할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워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횡수를 줄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노주는 적어도 그 大體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론하였다. 구차하기는 하지만 講員이 저마다 양식을 싸 오는 방법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강학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당시의 강학 여건이 열악했음을 보여준다.

노주는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스승이라 할 수 있는 溪湖 집안의 선대를 제향하는 石室書院에서도 강경하는 책임을 맡아 講舍를 정비하였다.

이 서원은 溪湖 선생이 두 세대에 이어서 도를 강론하던 곳인데, 내가 외람하게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서원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각에 지금은 아직 선생 시대에서 멀지 않아 유풍과 여운이 사라지지 않아서, 저번에 쇠한 몸을 이끌고 가서 講席을 주선했을 때에도 많은 유생이 모였으니, 후세에 인제가 없음이 아니라 계승해서 창도할 사람이 없어 몹시 몽매하게 되었을 뿐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이 간절해서, '이 어찌 재주가 못한 죄이라?'라고 하고서, 마침내 자기 꼴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함부로 直月을 정하고 講生을 뽑아 거듭 약속한 뒤에 폐지된 제도를 재정비하고 수행함으로써 북돋아 펼쳐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¹³⁾

12) 상계서, 권13, 「答德峰儒生」.

석실서원에서 공부하는 諸生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諸生에게 추천을 받아 석실서원에서 강학을 맡게 된 그는 새로 直月을 정하고 講生을 뽑는 한편 폐지되었던 제도를 다시 정비하여 講會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漢湖가 선대를 뒤이어 도를 강론하던 이 서원이, 農巖 선생 이후 전해 내려온 유풍과 여운이 남아 있는 특별한 공간이므로, 굳이 쇠한 몸을 이끌고 가서 講席을 주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주는 가장 먼저 선인이 정해놓은 규범을 가져다가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다. 『노주연보』에 따르면, 1824년 5월에 석실서원 운영을 맡게 되어 옛 학규를 새로 정비한 후에 직접 서원에 가서 設講했다고 한다.¹⁴⁾

내가 진실로 諸生의 모범이 되기에는 부족하기에, 선인이 정한 좋은 규범을 빌어 적용하면서 눈앞의 효과를 바라지 않고 오래 계속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학문이 끊긴 시기라도 한 개나 반 개라도 혹 부족하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정말 구구한 저의 고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講錄案을 보니 참석한 諸生이 매우 적습니다. 어찌 이렇게 마음이 호응하지 못한 것입니까? 절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움츠러들게 됩니다.¹⁵⁾

하지만 석실서원이라 해도 강학하는 사정이 좋았던 것은 아닌 듯하다. 처음에 講錄案에 기록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니 강학에 참석한 諸生이 매우 적어 절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정도라고 한다. 노주는 이런 형편에 굴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강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서원에 가서 일을 주관하고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다. 예컨대 1824년 5월에는 압구정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풍몽정을 구경한 뒤에 서원에 들어가 강회를 열었는데, 이때 양주와 광주 선비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석실서원 외에도 顯節祠에서 유생의 요청에 따라 主講의 책임을 맡기도

13) 상계서, 권13, 「論石室儒生」.

14) 상계서, 권27, 「年譜」(1824년 5월), “是院, 卽農巖漢湖講道之所也. 先生管院事, 修舉舊規, 至是又親往設講焉.”

15) 상계서, 권13, 「論石室儒生」.

하였다. 노주는 이 일을 수락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빠른 효험을 기대해서 設講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학하는 일도 모른 채 날로 몽매한 데로 달려가는 선비들을 깨우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 아울러 강학의 중요성에 관해 이렇게 역설하였다.

아, 몇몇한 본성을 지키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찌 고금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아서 세상 영재가 전부 매몰되어 있을 뿐입니다. 괴롭게 생각하던 차에, 마침 여러분이 외람하게 추천하여 나에게 講事를 주관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에 혼자 생각하기에 이로써 앞장서서 이끌고 북돋우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행하고 오래 유지하면, 어느 순간 한두 사람이라도 떨치고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 黨의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여러분 요청을 끝내 사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¹⁷⁾

사람은 몇몇한 본성을 지키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으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태를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마침 講事를 주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새롭게 변화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겨서 마침내 부탁에 응한다는 내용이다. 곧 강학을 통해 앞장서서 이끌고 북돋우기를 부지런히 하여 점차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기대한 것임을 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주가 거센 국내의 정세 변화 속에서 사회가 흔들리고 가치가 전도되던 시기에 살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여 찾아낸 것이 바로 강학이었다. 자신이 지켜온 학문 전통을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구현하여 혼란에 빠진 시대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되었다. 위에 인용한 여러 기록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노주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매산 홍직필의 현실 대

16) 상계서, 권13, 「答顯節儒生」, “今茲設講之舉, 固非爲觀瞻, 亦非蕪近效也. 宜以近日師友道喪, 爲士者不識講學之爲甚事, 日就貿貿而莫之覺焉.”

17) 상계서, 권13, 「答顯節儒生」.

응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¹⁸⁾ 두 사람이 활동하던 19세기 전반은 세도 정치와 삼정 문란으로 인한 부패가 극심한 데다, 이방 문명이 속속 유입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휩쓸면서 지식인 사회가 분열하고 혼란에 빠져들던 때이다.

이런 때에 매산은 가치 혼란에 따른 流俗의 폐해가 이단보다 심각하다고 보아 풍속과 기강을 바로 세우고 名檢을 숭상하고 浮華를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그래서 심성론과 예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儒道를 회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유로 강학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각별하게 유념하였을 뿐 아니라²⁰⁾, 사회 각처에서 윤리와 절의에 관한 미담을 발굴하여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²¹⁾ 충효와 정렬이 특이한 자이면 궁벽한 여항에 사는 미천한 인물도 가리지 않고 立傳하고 비명을 써주고자 애쓴 것은 풍속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였다.²²⁾

노주도 매산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서에 힘쓰고 강학에 매진하였다. 이것이 최선인가를 논한다면 여러 평가가 있겠으나, 노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주는 손자 吳弘善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아주 아무렇게나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책은 배움을 늘려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유지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를 버리면 뜻이 사라지고 기운이 꺾인다. 그리고 몸도 따라서 병든다.”²³⁾고 했다. 그가 평생 강학에 매진하면서 기대했던 독서 효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18) 신영주, 「梅山 洪直弼의 儒道존숭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pp. 274-275.

19)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20) 상계서, 卷16, 「梅山洪先生行狀」.

21) 신영주, 「매산 홍직필의 外史氏역할과 인물 군상의 기록—傳狀과 碑誌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22)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苟有忠孝貞烈, 或立傳、或銘墓, 闡發其潛德幽光.”

23) 吳熙常, 『老洲集』 권3, 「與弘善」.

Ⅲ. 노주의 讀書論과 讀書四法

노주는 강학에 애를 쓰는 사이에 언제나 집안의 자제나 문하의 제자 등 여러 사람의 독서 상황을 살피고 학문 방법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아래는 庶弟 吳謹常에게 보낸 편지이다.

佑常이 찾아와서 네가 한창 『맹자』를 읽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근래에 인가에서 소년들이 絃誦하는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다. 혹 三經을 읽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어구를 주워 모아 과거 공부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 삼경이 성인의 謨訓이 아닌 적은 없으나, 이렇게 읽어서야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진실한 뜻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四書의 경우는 애초부터 눈을 대지 않아 어떤 글인지조차 거의 모른다. 내가 일찍이 탄식하던 바이다.²⁴⁾

謹常이 『맹자』를 읽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기뻐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독서를 멀리하여 경전이 어떤 책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태인데, 謹常이 이런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서 자신을 다독여 독서를 지속하고 있음을 높이 추켜세우면서 편지로 격려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어구를 익혀서 과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한다. 이런 까닭에 三經을 공부하는 자가 없지는 않으나 진정한 학문과는 거리가 멀고 조금도 진실한 뜻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四書를 공부할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아 여기에 어떤 글이 있는 줄도 모른다고 탄식하였다.

그래서 노주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문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곤 하였다. 이 중에는 독창적 견해라기보다 선배 학자들이 전한 주장에 자기 생각을 보탠 것이 많다. 그렇지만 나름으로 현실에 맞추어 새롭게 이야기한 것들이어서, 학문 방법에 관한 노주의 생각을 엿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 자주 언급한 先經後史 등 몇 가지 주장을 아래에 소개한다.

24) 상계서, 권3, 「寄謹常」.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을 정하는 원칙으로 여러 차례 제시한 '先經後史'가 주목된다.

또 근래에 綱目을 읽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일찍이 너에게 권한 것이었으나, 經을 버리고 오직 이것을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經과 史는 절로 輕重의 구분이 있다. 經을 먼저하고 史를 뒤에 하는 것이 우리 집안에 전해오는 法門이다. 예전에 家庭에서 가르침을 받은 바로는 연소한 儒士가 三冬에 한 가지 經書를 읽지 않으면 士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우리 후손의 律令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너는 근본이 熱鬧한 사람이니, 더욱 經書와 冷淡에서 活計를 찾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마침내 효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⁵⁾

친동생 吳淵常의 막내아들 吳致愈(1798~1820)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이전에 『綱目』을 읽으라고 권한 것은 經을 버린 채 『綱目』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타이르면서, '經을 먼저하고 史를 뒤에 하는 것'이 가정에서 물려받은 法門이라고 말하였다. 연소한 儒士가 三冬에 한 가지 經書라도 읽지 않으면 士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을 만큼 경서 공부를 중시한 것이다. 곧 史를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經과 史의 輕重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노주가 贊善 벼슬에서 사직하기 위해 1827년 정월에 올린 상소이다. 이 글에서 先經後史에 관한 자기 생각도 함께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經은 이치에 관한 책이고 史는 일에 관한 책이며, 經은 순수하고 史는 잡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고인은 독서를 할 때 반드시 經을 먼저 하고 史를 뒤에 하였습니다. 이로써 義理의 큰 綱目에 젖어 들고 관통하여 이것이 마음속에서 중심을 이루게 한 뒤에 史로써 보완해야, 本末이 서로 도움을 주고 이치와 일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고금 人物의 邪正과 事變의 得失과 王霸,公私, 善惡의 차이를 헤아려본다면, 올바른 식견이 세워져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經을 느슨하게 여기고 史를 시급하게 여겨서

25) 상계서, 권3, 「與致愈」.

선후 순서가 잘못되더라도 한다면, 이는 마치 눈금 없는 저울과 치수 없는 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쇠를 금이라 하고 적을 자식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功利의 틀에 빠져들 뿐이어서 天德과 王道를 배우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朱夫子는 늘 배우는 자가 經을 버리고 史를 익혀서 心術을 해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지극한 훈계입니다.²⁶⁾

經을 먼저 하고 史를 뒤에 한다는 주장은 조선 유학자들이 일찍부터 공부 방법으로 내세우던 것이었다. 經은 순수한 이치를 다루고 史는 잡다한 역사 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심성 수양을 우선하는 도학자들이 반드시 우선 經을 읽어 義理의 綱目을 바로 세우고 史를 읽어서 보충해야 올바른 식견이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史를 우선하여 배우고 經을 뒤로 미루면 사리를 판단하는 시각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마치 눈금 없는 저울과 치수 없는 자를 사용하여 무게를 재고 길이를 헤아리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심지어 쇠를 금이라 하고 적을 자식이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마침내는 功利를 좇을 생각에 골몰할 뿐이라고 우려하였다.

곧 이런 까닭으로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당시의 현실 세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유도의 약화를 지목한 것이었고, 이를 치유할 가장 효과적인 방책으로 經을 강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극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先經後史의 방법으로 經을 우선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경서 공부에 관하여 많은 언급을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강조한 것은 '과정에 따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과 '의심을 내어 공부하는 것'이었다.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의리와 가치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내어 의혹이 남지 않는 명징한 학문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경서를 온전하게 읽어내고 그 의리를 자신에게 체화시켜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독서 종자를 길러내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26) 상계서, 권1, 「辭贊善兼陳所懷疏」(1827년 정월, 65세).

아래는 노주가 吳淵常의 큰아들 吳致愚에게 보낸 편지로, 과정에 따라 꾸준하게 공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는 課程을 두어서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비유하자면 밥을 먹을 때에 한 달 30일 동안 하루에 두 그릇씩 밥을 먹는 것과 같다. 밥 두 그릇이 비록 적으나 쉬지 않고 지속하면 효과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혈기가 充潤해진다. 빠르게 읽는 데만 힘쓰고 課程을 두지 않으면 마치 한 번에 밥 몇 말을 먹고 나서 온종일 먹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몇 말이 비록 많은 양이지만 이로써 다른 날의 굶주림을 구제할 수는 없다. 응당 속히 한 가지 經書를 가져다가 역량에 따라 과정을 세워서 심한 병이 아니면 갑자기 중지하지 말고 빠른 효과를 구하지도 말아서 실제에 근거해서 認究하기를 3, 4년간 지속한다면 절로 큰 공을 이룰 수 있다.²⁷⁾

독서는 과정을 두어서 차근차근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마치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일정하게 밥을 먹어야 혈기가 충만하고 윤택해지는 것처럼, 과정을 두어 독서를 지속해야 절로 그 효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밥 몇 말을 먹고서 내내 굶는 것처럼, 빠른 성과를 내려고 과정을 무시한 채 몰아쳐서 단숨에 독서를 마치고서 그대로 멈춘다면 결코 그 효과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서를 부지런하고 독실하게 하는 것은 옳으나, 그렇다고 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멎대로 읽어서 대강대강 과정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번에 달려들었다가도 금세 그만두고 물러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기혈을 소모해서 병이 나기 쉽기 때문이다. 반드시 역량에 따라 과정을 세워두고 여유롭게 가는 소리로 음미하여 읽어가면서 마음과 책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²⁸⁾

27) 상계서, 권3, 「與致愚」.

28) 상계서, 권3, 「與致翼」, “讀書雖務勤篤, 不必窮晝夜恣讀, 忽忽趁課. 此非特患在進銳退速, 政恐耗喪氣血, 反易生疾也. 須量力作程, 寬着意思, 細聲玩讀, 深潛浹洽, 要使心與冊子爲一方, 久長有得力處也.”

따라서 자기 역량에 맞게 과정을 정해두고서 독서를 하면서 실천을 통해 체험하여 이해하고 궁구하여 밝히기를 3, 4년간 지속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독서 방법이며, 이렇게 했을 때 절로 큰 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모름지기 속히 四書, 小學, 近思錄, 朱書節要 등의 책을 가져다가 자리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투철하게 읽지 못하고 읽는 횟수가 부족하더라도, 課程을 세워서 쉬지 않고 순환 반복해야 한다. 한갓 章句를 찾아내고 言語를 주워 모으는 정도를 이롭게 여기지 말고서 그 義理의 맛이 허파와 장기에 젖어 들게 하는 것을 오래 해야 한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식견이 자라고, 식견이 자라면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²⁹⁾

노주가 吳致愚에게 보낸 다른 편지 내용이다. 四書와 『소학』, 『근사록』, 『주서절요』 등의 기본 경전을 독서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설령 투철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충분한 횟수를 읽지 못하더라도 課程을 세워서 쉬지 않고 순환 반복해서 읽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읽은 글에 내재한 義理를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는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완전히 체화시켜야 식견이 자라고 이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글쓰기 공부를 위해서 한갓 章句를 찾아내고 言語를 주워 모으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독서 방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심을 내어 읽어야 한다고 특별하게 강조하였다. 아래는 둘째 아들 吳致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또 책을 보면서 의심을 낸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다. 다만 이에 관한 너희의 생각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른바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언제나 절반은 밝고 절반은 어두운 모호하고 암담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일체를 功夫하고자 한다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 읽고 한편으로 외는 공부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句마다 字마다 하나하나 사색하여 의심되는 곳을

29) 상계서, 권3, 「與致愚」.

찾아내서 알고 모르는 것이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경계가 나뉘도록 해야 한다.³⁰⁾

책을 읽을 때는 입으로 읽고 외는 데서 멈추지 말고 언제나 의문을 가지고 찬찬하게 음미하면서 字句 이면에 내재한 의미를 探索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배우는 사람은 먼저 모름지기 의심을 낼 줄을 알아야 한다.”³¹⁾는 程子の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의문을 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는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절반은 밝고 절반은 어두운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읽고 된 뒤에는 반드시 句마다 字마다 하나하나 의문을 가지고 사색해서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³²⁾

노주는 큰아들 吳致成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孟子』를 읽는다고 들었는데, 이제 몇 번을 읽은 것이냐? 疑難이 있을 것인데, 어찌 일일이 적어서 보여주지 않느냐? 무릇 독서는 범범히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창 읽을 때는 着力할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미 읽은 뒤에는 得力한 곳이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잘 읽었다고 할 수 있다.³³⁾

책을 읽으면서 결코 疑難이 없을 수 없는데, 이를 어찌하여 물어보지 않느냐고 질책하는 내용이다. 이는 책을 범범히 읽고 넘길 뿐이어서 疑難이 생기지 않았거나, 생긴 疑難을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찬찬하게 분석하고 탐색하여 읽으면서, 반드시 힘을 다해서 읽을 부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읽은 뒤에 得力한 부분이 있어야 잘 읽었

30) 상계서, 권3, 「與致翼」.

31) 『근사록』 권3 「致知」, “學者先要會疑.”

32) 상계서, 권3, 「與致翼」, “不然, 只是依前伎倆, 非他人所可容力. 先儒有云‘從無疑, 看出有疑, 復從有疑, 看到無疑’, 此言甚好矣.”

33) 상계서, 권3, 「與致成」.

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주는 독서 방법에도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독서 방법에 관한 주장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친동생 吳淵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독서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³⁴⁾

무릇 독서에는 看, 讀, 誦, 念 4가지 방법이 있다. 看書는 心과 眼이 함께 작용하여 읽는 것이고, 讀書는 心과 口眼이 함께 작용하여 읽는 것이고, 誦書는 心과 口가 함께 작용하여 읽는 것이고, 念書는 홀로 心이 작용하여 읽는 것이다.

독서 종류를 看, 讀, 誦, 念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마음과 눈이 작용하여 읽는 것을 ‘看書’라 하고, 마음과 입과 눈이 작용하여 읽는 것을 ‘讀書’라 하고, 마음과 입이 작용하여 읽는 것을 ‘誦書’라 하고, 오직 마음 하나가 작용하여 읽는 것을 ‘念書’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서 단계를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초보 단계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입으로 소리 내어 외면서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가장 높은 단계는 오직 마음속으로 음미하면서 사색하는 것이다. 곧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읽는 것, 소리 내어 외는 것, 마음으로 음미하는 것을 독서 4단계로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4단계 독서 방법은 노주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은 아니다. 한 세대 후배 尹鍾燮(1791~1870)은 「敦寧府都正朱公行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三淵이 말씀하신 看, 讀, 誦, 念 네 글자를 과정으로 삼았다. 看을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讀을 하고, 讀을 하다가 이미 충분하면 다시 誦을 하고, 誦을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念을 하였다. 아침에 읊고 저녁에 익혀서 이미 알고 나면 반

34) 상계서, 권3, 「答士默」, “大凡書有看讀誦念四法. 看書者, 心與眼相謀. 讀書者, 心與口眼相謀. 誦書者, 心與口相謀. 念書者, 惟以心而已.”

드시 실행하였기에, 文章을 기술할 수 있었고 科宦도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外面으로 달려가서 호추를 통째 삼키거나 수박을 걸만 할 는 듯이 한다면, 평생 부지런히 한들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³⁵⁾

삼연이 먼저 제시한 看, 讀, 誦, 念 4법에 따라서 독서 4단계를 설정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독서하는 처음에 먼저 看을 한 뒤에, 이로는 부족하여 讀을 하게 된다. 또 충분히 讀을 한 뒤에 誦을 하고, 誦을 한 뒤에 다시 念을 하는 것이 4단계가 된다.

아울러 이렇게 내내 익힌 뒤에는 배운 바를 실천하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말한 독서 4법과 다른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단계에 따라 착실하게 익히지 않고서 갑자기 달려들어 대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경계한 것에서, 이 궁극적 성취에 이르는 점진적 독서 단계로 4법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 삼연이 직접 언급한 것은 문집에 보이지 않으나, 일찍이 “한갓 讀할 줄만 아는 자는 안목이 글씨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한갓 誦할 줄만 아는 자는 글 읽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는 않으나 읽는 소리가 끊기는 순간 그 맛도 사라진다. 오직 思를 잘하는 자라야 구절마다 글자마다 하나하나 상세히 깨닫고 건건이 융통해서 마침내 관통하는 수준에 이른다.”³⁶⁾라고 말한 것이 문집에 보인다. 아울러 思가 誦보다 어렵고 誦이 讀보다 어렵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독서 4법과 거의 일치한다. 看의 단계가 讀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念이 思로 바뀌었을 뿐 읽고 외고 사색하는 세 단계를 설정하였고, 그 뒤에 실천하는 단계를 보태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讀의 단계를 건너뛰고서 誦으로 갈 수 없고, 또 곧장 思의 단계로 건너갈 수 없는데, 讀에 머물면 글과 자신이 별개가 되어 눈을 떴고 나면 그만이어서 아무런 소득이 없게

35) 尹鍾燮, 『溫裕齋集』卷5, 「敦寧府都正朱公行狀」.

36) 金昌翁, 『三淵集』卷36, 「漫錄 庚子」.

되고, 誦에 머물면 입으로 끊임없이 읊조려서 그 맛을 음미하는 듯하지만 이를 멈추면 그뿐이어서 그 맛도 찾을 수 없게 되고, 오직 思를 잘해서 깨닫고 관통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 올바른 독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연은 이런 문제를 死讀書와 活讀書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책을 덮어도 그 의리가 森然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活讀書이고, 책을 덮은 뒤에 도로 아득하게 망각하는 것은 死讀書인 것이다.³⁷⁾ 그래서 活讀書에 이르려면 반드시 사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노주가 제시한 독서 4법은 삼연이 말한 독서 3법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讀을 看과 讀으로 나누고 誦을 讀과 誦으로 나누고 誦을 誦과 念으로 나누어서 그 개념 범주를 다소 분화시킨 것이다.

이후 매산 홍직필도 독서 4법을 언급한 적이 있다. 매산은 金體一에게 보낸 편지에서 “看, 讀, 誦, 念으로 융회하고 관통하는 것이 곧 ‘주자의 허다한 공부를 통해서 주자를 알아낸다.’라는 것입니다.”³⁸⁾ 하였다. 주희 「大學讀法」의 “나의 허다한 공부를 통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내지 못하고, 성현의 허다한 공부를 통하지 않아도 성현을 알아내지 못한다.”³⁹⁾라는 말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肅齋 趙秉憲(1800~1870)도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율곡전서』의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을 네가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여, 네 말대로 한 사람을 보내었다. 다만 이 책을 看, 讀, 誦, 念하여 강습하고 토론하여 體認하고 服行하는 토대로 삼지 못할 것이라면, 다시 돌려받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⁴⁰⁾ 하였다. 이 4법이 엄연하게 독서 방법을 규정하는 4단계 과정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7) 金昌翁, 『三淵集拾遺』 卷31, 「語錄」, “明履問爲學之要. 先生曰 ‘古人說居敬窮理. 但居敬有黑居敬白居敬. 若使心不惺惺. 外面莊嚴不足尙. 窮理工夫. 讀書最好. 然讀書亦有死讀書活讀書. 掩卷後便見義理森在目前. 是活讀書. 若於啓卷時有知. 掩卷後茫然. 則是死讀書.’”

38) 洪直弼, 『梅山集』 卷25, 「答金萬壽 體一〇丁末」.

39) 朱熹, 「大學讀法」.

40) 趙秉憲, 『肅齋集』 卷3, 「寄章熙」.

IV. 맺음말

노주 오회상의 강학 활동과 독서론에 관해 살펴보았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18세기 말에 성장하고 19세기 전반에 장년기를 보내면서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한 불안한 정세를 민감하게 느끼던 노주는,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는 관료가 되기보다 儒賢으로 남아서 학문 강학의 길에서 역할을 다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당시는 국외에서 밀려오는 이국 문물과 가치가 내부 질서와 충돌하여 조선 사회를 흔들어대던 때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 대대로 지켜오던 학적 전통마저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儒道가 약화하고 사회 기강이 흔들리고 있었기에,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노주는 유도를 회복하고자 늘 고심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국왕에게 돈독한 지우를 입었고 끊임없이 召命이 내려왔음에도 번번이 마다하고 학문 강학에 집중하였다.

이 글에서는 노주가 서원을 배경으로 강학을 이어갔던 모습을 고찰하였다. 유도의 권위가 흔들리고 강학하는 전통이 힘을 얻지 못하던 조선 말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주는 석실서원과 덕봉서원 등 여러 강학 공간에서 강학하는 일을 주관하여 지역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였고, 나아가 온 나라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사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서원 공간을 주목한 듯하다.

국가의 시류가 바뀌는 과도기에 이를 되돌려 세우기는 어려운 것이었기에, 기대한 만큼 그 효과를 얻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당대의 왜곡된 가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학술 경험과 지식을 기울여 노력한 모습 그 자체로서 이미 정당성을 갖는 일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노주는 강학을 이끄는 사이에 선배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활용하면서 이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것이 그만의 독특

한 견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름으로 당시 강학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게 제시한 독서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노주는 '先經後史'의 방법으로 경서를 우선하여 읽고 역사서로 보충하여 읽기를 무척 강조했는데, 이는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당시의 현실 세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유도의 약화를 지목하였고, 이를 치유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經을 강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극구 주장했던 자신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先經後史의 방법으로 經을 우선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경서 공부에 관하여 많은 언급을 했는데, 다시 경서 공부를 위해서는 '역량에 따라서 課程을 세워 읽기'와 '字句를 사색하고 疑難을 찾아내어 묻고 분석하여 읽기' 등을 실천해야 함을 누차 역설하였다.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의리와 가치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내어 의혹이 남지 않는 명징한 학문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경서를 온전하게 읽어내고 그 의리를 자신에게 체화시켜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독서 종자를 길러내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아울러 독서의 네 단계로서 四法을 제시하여 경서 공부를 단계에 따라 심화하여 차근차근 진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노주의 강학 활동에서 더 주목할 만한 것으로 세자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점과 관북 지역 출신 유생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점을 꼽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향후 추가 연구를 기대해본다.

〈參考 文獻〉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金昌翁, 『三淵集』, 韓國文集叢刊 166집, 한국고전번역원, 1996.
吳熙常, 『老洲集』, 韓國文集叢刊 28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1.
尹鍾燮, 『濶裕齋集』, 韓國文集叢刊 속119집, 한국고전번역원, 2011.
任憲晦, 『鼓山集』, 韓國文集叢刊 314집, 한국고전번역원, 2003.
趙秉憲, 『肅齋集』, 韓國文集叢刊 31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3.
朱 熹, 『大學讀法』.
朱 熹, 『近思錄』.
洪直弼, 『梅山集』, 韓國文集叢刊 295집, 한국고전번역원, 2002.
- 신영주, 「매산 홍직필의 外史氏역할과 인물 군상의 기록—傳狀과 碑誌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신영주, 「梅山 洪直弼의 儒道존숭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pp. 274-275.

Abstract

Lecture activities and readings of Nohju(老洲) Oh hee-sang(吳熙常)

Shin Young-ju^{*}

This paper is a paper that examined the fact that the author focused on lectures and reading while experiencing uneasy social confusion as he grew up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spent his old age in the early 19th century. Nohju(老洲) became Confucian scholar(儒賢) rather than being a bureaucrat, so he devoted himself to academic lectures and tried to change society. At that time, foreign cultures and values were pushed into Korea, and they were shaking our society by clashing with the existing order. For this reason, the tradition and authority of the scholarship that has been maintained in our country has been undermined. Therefore, Confucianism lost its power and the discipline of society was in crisis. In this age, Nohju(老洲) always tried to restore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Because of this, the king kept giving him office. However, he did not accept it, and he strived to study only.

Nohju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space called Seowon(書院) that can change society. He was in charge of discussing scholarship in 'Seosil Seowon' and 'Deokbong Seowon'. So he tried to change the social order in this area. He hoped that he could go one step further and change the whole country. It is difficult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and realize it in the transition period when the atmosphere of our country changes. Because of this, it would not have achieved the effect that was originally expected. However, he has to admit that he has tried to correct the wrong social order by utilizing his academic experience. And that alone has already done a great job.

In the meantime, Nohju himself expressed his views on various ways of reading. 'Reading the scriptures first, adding a history book to read,' 'Reading a book by setting up a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my own abilities,' 'Thinking about each letter and each verse and reading it, and finding difficult and suspicious areas to ask while reading'

* Professor, Sungshin University / syj@sungshin.ac.kr

emphasized these things. In addition, he suggested four ways as the four stages of reading, and encouraged them to read books while deepening the process gradually. In the activities of the pastor, we should pay attention to various opinions on how to teach the prince. And he was interested in educating students in Kwanbuk(關北) area. However, this paper does not cover this part. Further research is expected in the future.

【Key words】 Nohju(老洲) Oh hee-sang(吳熙常), Lecture activities, reading, Read the scriptures first and read the history books behind(先經後史), four stages of reading(讀書四法)

투고일 : 5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